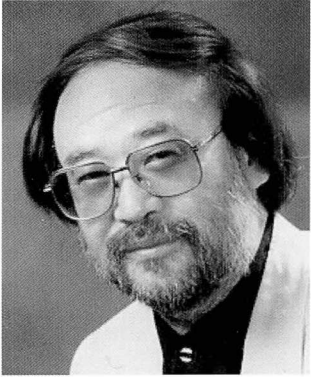


내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

권종택 | 보림 대표



“나는 일에 필요해서 읽든, 읽고 싶어서 읽든, 한 달에 20권 이상의 책을 보고 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책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었던 에너지였던 것 같다.”

‘나는 먹고살기 위해 책을 읽는다.’ 언제 어느 장소든 손이 비어 있으면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손에 항상 무엇이든 읽을거리를 찾아들게 된다.

토플러의 책에서 출판의 방향 암시 받아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책 가운데, 1980년 초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만났을 때의 전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지금에 와서 보면 아주 싱거운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내 인생의 최대 관심사를 바꿔놓을 만큼 강한 충격이었다. 《제3의 물결》을 만난 후부터 나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예측은 전환의 순간을 예리하게 포착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했고, 그 결정은 거의 적중했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유아를 위한 그림책을 출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제3의 물결》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됐다.

20여년 전, 나는 어떤 분야를 전문화할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미래의 출판 시장에 대해 몇 가지 구상을 하게 됐고, 마침내 유아도서 출판을 결정하게 됐다. 당시 어린이 도서 분야는 금성출판사, 국민서관, 계몽사 등 몇몇 대형 출판사들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4~5세 정도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시장은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다.

그 전, 전집 출판을 하면서도 나는 1995년 경에는 그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전집 출판을 접기로 하고, 1992년부터 준비해 1994년부터 조심스럽게 단행본을 출판하게 됐다. 현재 전집을 출판하던 출판사들은 몇 개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다.

어쨌거나 나는 일주일에 2~3권 정도의 책을 사서 읽었다. 몇 년 전부터는 꼭 읽어야 할 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나면 볼 수도 있는 책이나, 목차나 머리말, 후기나 읽는 정도의 책까지 포함해 한 달에 20권 이상의 책을 구입하고 있다.

단행본 출판으로 전환하면서도, 유아도서 가운데 어떤 분야의 책으로, 어떤 성격의 책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며, 다양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 도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그런 가운데 뭔가 해결책이 눈에 보였고, 드디어 우리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그림책을 펴내기로 결정했다.

‘아는 사람의 책은 읽지 말고, 읽은 책의 저자는 만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저자를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가까운 인연을 만들기도 한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기》(백록출판

사)의 저자이자 아동문학가인 전 승의여대 석용원 교수님이다. 교수님을 찾아가 만나 친분을 맺어 《이야기 하늘나라》 등의 책을 펴냈다.

책에서 출판의 소재와 필자 찾아

《긋의 사회사》(웅진출판)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 마침 단행본 전환의 첫 색깔을 우리 전통 문화로 결정하고, 그 분야의 책을 다양하게 읽고 있을 때라 더욱 그랬다. 민속학자 주강현 박사를 찾아가 3년 동안 함께 일하기도 했다.

《한시 미학 산책》(술)을 재미있게 읽고, 한양대학교로 정 민 교수님을 찾아가 책을 읽은 독자로 만났다. 그 후 3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한시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자고 조르고 졸라, 머지않아 정 교수님께서 어린이를 위한 한시 책을 내놓으실 것이다.

또 얼마 전에는 《옛 지도의 아름다움》(효형출판)을 읽고는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했다. 우리 옛 지도의 아름다움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림책으로 만들어 올해 안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나는 일에 필요해서 읽든, 읽고 싶어서 읽든, 한 달에 20권 이상의 책을 보고 있다. 일간지 6종, 기타 전문지 5종, 시사 주간지, 경제 주간지 등도 모두 보고 있고, 출판계의 각종 전문지들도 빠짐없이 본다. 한때는 이상, 이중섭, 고희, 이사도라 던컨 등 예술가들의 책만 미친 듯이 읽은 적도 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책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었던 에너지였던 것 같다.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뒷걸음치지 않고 이나마 출판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분야의 책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

권종택씨는 1976년 도서출판 보림을 설립해 전통문화 그림책 《술거 나라》, 《전통과학》 시리즈, 옛 이야기 그림책 《까치호랑이》 등 25여년 동안 유아용 그림책을 전문으로 출판해오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연중캠페인— 다시 책이다’ 개막식 열려 · 외

문화관광부와 출판계 6단체가 공동추진하고 문화일보가 후원하는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연중캠페인—다시 책이다’ 개막식이 지난 3월 4일 문화일보홀에서 열렸다.

캠페인 연중계획표의 내용은 ▲전세계 독서문화 심층취재 및 국내외 대표 지성들 독서체험기 연재 (문화일보 지면, 3월 8일부터) ▲한국인 독서실태 조사 ▲독서혁명의 필요성, 대권후보초청 출판정책 토론회 등 ‘국민독서 대토론회’ 5회 추진 ▲‘세계 책의 날’ (4월 23일) 명절 지정 및 행사 개최 ▲해외 유명 저자 초청 강연회 ▲광화문 등 수도권 3개 지역 재고도서 공동판매전 등이다. | 735-2701

학술원, 기초학문 우수학술도서 보급 지원계획 공고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호왕)은 기초학문분야의 우수학술도서와 동서양고전 우수 국역서를 선정하고 보급을 지원한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에서 초판 간행된 학술도서와 동서양고전 우수 국역서를 대상으로 문학·사학·수학·물리학 등 각 분야에서 모두 400여종을 선정한다. 지은이·국역자·발행인이 신청서와 도서내용 개요서 양식을 학술원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신청도서 5권과 함께 4월 20일까지 학술원 사무국 학술진흥과에 우편·방문 접수해야 한다. 학술원은 선정결과를 7월에 중앙일간지와 학술원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534-0737 | www.nas.go.kr

한국출판인회의, <이달의 책> 선정

한국출판인회의(대표 김언호)는 한국출판인회의 독서진흥위원회(위원장 고세현) 주관으로 <이달의 책> 41종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책은 ▲인문(6종)—《추추과 논박(전2권)》(칼 포퍼, 이한구, 민음사) 외, ▲자연과학(3종)—《과학연구윤리》(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당대) 외, ▲청소년(6종)—《망치를 든 지질학자》(장

순근, 가람기획) 외 등이다.

| 3444-0623 | www.kopus.org

저작권심의위원회, 저작권 문화학교 개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용)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전문가를 양성할 저작권 문화학교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희망자는 3월 23일까지 위원회 사무국 심의조정부에 접수해야 한다.

| 669-9942 | www.copyright.or.kr

한국전자책컨소시엄, 기자간담회 열어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회장 김경희)은 지난 2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EBK 회장인 지식산업사 김경희 대표는 올해 예산액이 총15억이라고 밝히면서 ‘우량 콘텐츠 전자책 제작’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 ‘한국 전통문화 전자책 제작’ ‘전자책 인증 및 납본 시스템 구축’ ‘이달의 우수 전자책 선정’ ‘2002 한국전자책 산업전 개최’ 등 6개 사업분야를 설명했다. | 722-6460 | www.ebk.or.kr

대산문화재단, 대산 청소년문학상 작품공모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은 전국의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대산 청소년문학상을 공모한다. 마감은 5월 31일이고, 시는 3~5편, 소설은 2백자 원고지 60장 내의 분량을 학교장추천서와 함께 우편·방문접수해야 한다.

| 721-3202 | www.daesan.org

“출판계의 화합으로 힘있는 협회 만들겠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일진사 이정일 대표

지난 2월 27일 열린 대한출판문화협회 제55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직선 투표로 신임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일진사의 이정일 대표(52)가 제4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이회장은 1978년 과학기술도서 전문출판사인 일진사를 설립했고, 1999년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으로 일해왔다. 그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면서 ‘화합하는 협회로’ ‘변화하는 협회로’ ‘능동적인 협회로’ ‘열린 협회, 힘있는 협회’라는 공약사항을 내건 바 있다. 이정일 회장을 만나 소감과 계획을 들어봤다.

— 회장 당선을 축하한다. 소감이 궁금하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하는 생각으로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막상 당선되고 보니 책임이 무겁다. 출판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앞선다.”

— 앞으로 어떻게 협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서적 화합을 이뤄내야 힘있는 협회가 될 수 있다. 도서정가제를 확립하고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에 앞장서겠다. 또한 출판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원칙과 순리에 맞게 출판계를 개혁해나가겠다. 출현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토탈 정보서비스 센터로 만들어나가겠다.”

— 한국출판인회의 등 다른 출판 단체들과도 공조할 생각인가?

“그렇다. 한국출판인회의뿐만 아니라 독서운동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손잡을 생각이다. 독서를 빼놓고는 국가발전이 있을 수 없다. 현재 매스컴에서 ‘다시 책이다’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그런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협회도 이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이회장은 단행본 출판사들의 지지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힘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 “합법적이고 원칙적인 범위 안에서 한국출판금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장근 기자

